

■ 주요 뉴스: 미국 금융시장. 중간선거 및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강화

- IMF 총재,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최고점에 근접
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전까지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
- 중국,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점진적인 중단을 검토, 구체적인 시간 계획은 부재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 가능성 등이 배경

주가 상승[+1.0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상승[+6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공화당 승리 시 물가상승 압력 완화 기대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레저관련주 강세 등으로 0.3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유로존 11월 Sentix 투자신뢰 개선 등이 영향
유로화가치는 0.6% 상승, 엔화는 보합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
독일은 9월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92.7원, -8.6원) 0.6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1/7일	11/4일	전일대비			11/7일	11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06.8	3,770.6	0.96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1%	4.16%	6bp
	유럽	418.34	416.98	0.33%		독일	2.34%	2.30%	5bp
	중국	3,077.8	3,070.8	0.23%		영국	3.64%	3.54%	10bp
	일본	27,528	27,200	1.21%		CDS 5y	한국	65bp	73bp
	한국	2,371.8	2,348.4	0.99%	중국		95bp	102bp	-7bp
	달러지수	110.17	110.88	-0.63%	위험 지표	EMBI+	-	438	-
유로화	1.0021	0.9957	0.64%	VIX		24.36	24.55	-0.77%	
환율	엔화	146.62	146.62	0.00%		WTI유	91.79	92.61	-0.89%
	위안화	7.2312	7.1851	-0.64%	원자재	구리	360.1	368.7	-2.32%
	원화	1,401.2	1,419.2	1.28%		금	1,674.5	1,681.9	-0.4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금융시장. 중간선거 및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강화

- 11/7일 미국 주가는 상승(S&P500 3,806.80 +0.96%). 달러화 지수는 전일에 비해 하락(110.17, -0.63%)했고,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로도 절하(-0.64%). 주요 국채금리는 상승(2Y 4.72% +6bp, 10Y 4.21% +6bp)
- 이번 결과는 11/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었기 때문.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지출 추진이 어려우며,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
- 아울러 이번 주 예정된 10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신호 발신 가능성도 존재.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가 제시된다면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관련 투자자의 기대 역시 높아질 전망
- 또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.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를 강조하고 있으나, 몇몇 언론들은 관계자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-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이라고 지적.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원인은 통화정책인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 총재,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최고점에 근접

-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정점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. 한편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

■ 골드만삭스, S&P500 기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. 수익성도 악화될 우려

- '22~'23년 S&P500 이익마진(에너지 부문 제외)이 각각 전년비 8.6%, 5.0% 줄어들 것으로 예상.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금년 3/4분기에는 이익마진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. 이에 '22년~'24년 이익 전망치를 모두 하향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전까지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. 다만 경제성장을 부진이 심화되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설명. 지금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, 중립금리에 도달하면 금리인상 속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연

■ 유로존 11월 Sentix 투자신뢰지수, 전월비 상승.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반영

- 11월 Sentix 투자신뢰지수는 -30.9를 기록하여 전월(-38.3) 및 예상치(-35.0) 상회. 해당 지수의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, 이번 결과는 투자자들의 경제 전망에서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(Sentix의 Manfred Huebner)

■ 영란은행,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명성 강화될 필요

- 사라 브리든 이사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,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금융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

■ 중국,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점진적인 종단을 검토. 구체적인 시간 계획은 부재

- WSJ에 따르면, 당국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종단할 가능성. 다만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는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 계획도 없다고 언급
- 골드만삭스는 내년 2/4분기 제로 코로나 관련 규제의 완화를 예상. 다만 최근 정부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

■ 중국 10월 수출입, '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비 감소. 수요둔화 등이 원인

- 10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비 0.3%, 0.7% 줄었고, 무역수지 흑자는 851.5억달러로 전년동월(845.4억달러) 대비 소폭 증가. 무역감소는 부동산 경기 부진, 코로나 19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
- 수출 감소는 대외 수요의 부진을 의미하며,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성장 둔화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(Pinpoint Asset Management의 Zhang Zhiwei)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7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9월 산업생산(전년동월비) : 2.6%, 8월(1.6%), 예상치(0.5%)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경기침체 확률, 우려와는 달리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편 - Financial Times

(Economists see recession coming, so maybe it's not)

- 인플레이션 압력이 4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, 미국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존재. 하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경기침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편
- 3/4분기의 양호한 성장률, 낮은 실업률, 주택구입자의 높은 신용도 등은 시장이 내다보는 경기침체 전망과는 괴리. 이들 요인을 종합하면, 현재는 경기침체 발생이 가시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

■ 실질금리에 대한 잘못된 기대, 투자 판단 오류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담 - 블룸버그

(Austrian Economists Can Explain the Coming Recession)

- 코로나 19 이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기술 등에 관한 투자 매력 확대. 또한 투자자들은 낮은 실질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를 실행.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대와 다른 환경이 조성
-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러한 실질금리 예측 관련 오류가 불필요한 투자를 유발하고 이후에 고통스러운 재조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. 아울러 최근의 실질금리 상승은 투자 위축을 일으킬 우려. 향후 실질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전까지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우며, 이는 경제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

■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사, ECB에 경기침체 대응 시사점 제시 - 블룸버그

(The BOE Edging Toward a Rate Pivot Sends a Signal to the ECB)

- 영란은행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.75%p 인상을 결정했지만, 일부 위원의 속도 조절 주장 등을 고려 시 동일 폭의 인상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. 향후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응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노력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
-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에 직면한 ECB에게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. 또한 기존에 이루어진 금리인상 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에, 이전과 같이 큰 폭의 빠른 금리인상을 통한 정책효과의 이점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

■ 서방 주요국, 향후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 - WSJ

(Supply-Side Steps to End Putin's Economic War)

-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나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및 OPEC+의 감산 등으로 서방과의 경제전쟁에서는 우세한 편. 실제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고금리 및 에너지 공급 부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
-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은 국내 및 동맹국의 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인·허가 관련 혜택 제공이 요구. 유럽의 경우 LNG수입을 위한 인프라 설립과 자금조달 노력이 필요
- 또한 서방국가들은 에너지 인프라 및 광산개발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시행해야 하며, 동맹국 간 비교우위를 활용한 미래 기술개발의 공조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전망

■ 글로벌 경제 탈동조화,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기후 위기 해결에 부정적 - Financial Times

(Ngozi Okonjo-Iweala: Decoupling is not the answer to climate crisis)

■ 미국의 다양한 인플레이션 지표,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예고 - 블룸버그

(Reasons Are Adding Up for Optimism on Inflation)

■ 미국의 경제성장, 감세와 지출 축소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 - WSJ

(The Cure? Cut Taxes and Spending)

■ 개발도상국 중앙은행, 미국 달러화 보유에 대한 불안으로 금 보유량 확대 - 블룸버그

(Even Central Banks Are Buying Gold for the Zombie Apocalypse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